

BASF, 북미사업 대규모 구조조정!

1750명 감원에 비효율 플랜트 가동중단 ... 2003년 EBIT 급감 영향

BASF는 2006년까지 NAFTA 지역에서 연간 코스트를 최소 1억5000만달러 감축할 것을 목표로 2단계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수익성이 부진한 북미지역에서 전체 근로자의 6%인 75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2004년3월 까지 인적자원, 정보기술, 구매, 재무 그리고 법률을 포함한 서비스직 근로자 1000명을 정리해고함으로써 연간 1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ASF의 Jurgen Hambrecht 회장은 최근 Ludwigshafen에서의 연설에서 북미지역의 수익성 부진을 질타한 바 있다.

2003년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라 EBIT가 56% 감소한 1000만유로(1220만달러), 영업이익은 9% 감소한 720만유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1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비용 3600만유로를 포함한 것이다.

BASF는 북미에서 공장 최적화와 생산입지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40여개 프로젝트를 이미 수립해 절반 이상을 실행했다.

뉴저지주 Bouth Brunswick 공장을 폐쇄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PS(Polyatyrene)은 멕시코 Altamira로 이전할 방침이다. BASF는 필요 이상으로 40개의 생산부지와 50개의 생산라인을 북미지역에서 가동하고 있어 생산부지 중 10% 이상을 폐지하거나 다른 지역과 통합할 예정이다.

다만, BASF의 멕시코 Altamira, 미국 텍사스주 Freeport, 루이지애나주 Geismar 그리고 텍사스주 Port Arthur는 일관생산공장으로 계속 가동한다.

BASF는 유럽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어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저비용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BASF는 특별항목을 제외한 2004년 1/4분기 EBIT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8만1400만유로(9억9230만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85억4000만유로를 기록했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연간 EBIT는 4% 증가한 30억유로, 영업이익은 4% 증가한 334억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영업이익은 북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데 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는 EBIT가 증가했으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감소했다. 2005년까지 4억5000만유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Ludwigshafen 부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비용 1억5600만유로가 포함된 것으로 50% 이상은 달성했다.

한편, BASF와 Shell의 Polyolefin 합작기업 Basell은 2003년 역대 최대의 손실을 기록했고 BASF는 Basell 적자의 영향으로 수익에 3000만유로-1억유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10>